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용 연구

김 현 수*

목 차

요약	3.3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공리
1. 서론	4.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와 운용모델
2. 현대경제사회와 경제시스템	4.1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
2.1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본질	4.2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운용모델
2.2 자본주의시스템 분석	4.3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현방안
2.3 사회주의시스템 등 분석	5. 토의 및 과제
3.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요건	Reference
3.1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필요조건	Abstract
3.2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충분조건	

요약

본 연구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서비스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인류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역사시대 5천여년간의 경제운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과거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모델로서 지금은 사실상 사라졌다. 사회주의시스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인류는 이상적인 경제운용시스템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세계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된 경제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되는 경제사회환경이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 심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모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제운용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우선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경제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이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인류를 위한 시스템이므로 인류사회의 공동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또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류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바탕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를 제시하고, 이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모델의 구조와 구체적인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모델이 국가별로 상이한 환경에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운용모델을 구체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보완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제어: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서비스철학, 자본주의, 사회주의, 인공지능

접수일(2020년 12월 10일), 수정일(1차:2021년 1월 20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15일)

* 국민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 hskim@kookmin.ac.kr

1. 서론

현대사회에서 경제시스템은 인류의 행복과 번영에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다. 양호한 경제시스템을 가진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의 개인과 조직은 행복도와 성취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인류의 현재보다 더 나은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수천년간의 경제운영 경험을 토대로 인류사회의 새로운 장기 지속가능발전 경제시스템 모델 구축을 시도하였다. 현재 세계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과거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하였으나 크게 실패한 모델이 되었다. 사회주의시스템 등 기타 시스템도 시도하였으나 인류는 여전히 이상적인 경제운영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세계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된 경제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 등 변화되는 경제사회환경이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 심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제운영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디자인한다.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모델을 도출한다. 도출되는 모델의 타당성을 공리에 기반하여 입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모델을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명명하고 그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한다.

제 2 장에서는 현대경제사회의 변화를 분석하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및 기타 경제시스템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로 현 경제시스템의 거시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인류사회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번영과 개인의 행복을 위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경제시스템의 목적과 인류사회의 목적을 일치시키면서 두 시스템의 공통적 성공원리를 도출하였다. 경제시스템의 기반 공리를 제시하였다.

제 4 장에서는 공리에 기반을 둔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델을 제시하였다. 새 시스템은 서비스주의로 명명되었으며, 정성적 분석으로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제 5 장에서는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토의를 수행하고 후속 과제를 논의하였다.

2. 현대경제사회와 경제시스템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기존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대경제사회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스템은 일시적인 개선시스템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안정적 경제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조를 아래 그림 <Fig-2-1>과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 도출하였다. 즉 현재의 주류 경제시스템인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현대 및 미래사회의 본질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였다. 또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인류사회의 장기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므로, 인류사회와 세계의 공통원리를 분석하여 경제시스템 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간과 세계의 공통원리를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기반을 두어야 하는 기본 공리로서 제시하였다. 이 공리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경제시스템을 서비스주의로

명명하고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도출 프로세스를 도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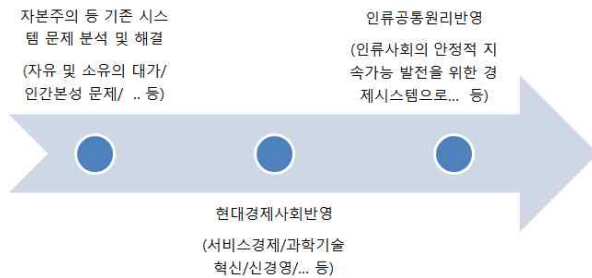


Fig.2-1. A Process of Constructing a New Economy System

2.1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본질

현대경제사회는 시간, 공간, 인간 관점에서 기존 경제사회와 크게 차별화된다(Kim, 2019a). 현대의 특징은 실시간 경제사회, 초연결 글로벌 공간, 주체적 인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리터러시 증대로 개인의 주도적 역할이 경제사회 전체 차원에서 크게 증가되었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이 단일 차원이 되었다.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해지고, 지식 보편화 현상이 촉진되었다.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면서 모든 개인들이 주체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번역기술의 발달로 전세계의 모든 지식들에 대해 대다수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소수의 인구가 고비용으로 지식을 독점 하던 시대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당 수준의 지식을 저렴한 비용으로 획득하고 보유하는 시대가 되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검색서비스 보편화로 개인들의 지식 획득 역량이 대폭 증대되었다.

제4차 및 제5차 산업혁명도 현대경제사회의 주요

변화요인이다. 사이버시스템과 물리시스템이 결합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제5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인간의 역할이 크게 변화한다. 기계가 모방하기 어려운 직무에 인간의 역할이 집중되는데, 매우 정교한 신체동작이 요구되는 직무나, 고도의 창의성과 협업력이 필요한 직무가 인간이 수행하는 주된 직무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Kim, 2016). 인간이 경제사회에서 수행해야하는 주된 역할이 창조력과 협업력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 탐구 필요성과, 이러한 탐구를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디자인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경제시스템의 비중과 역할에도 큰 변화가 있다. 고대에서 중세시대까지는 종교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가 이외에는 조직의 규모가 작았고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경제시스템의 중요성이 낮았다. 근대이후에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되면서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고용의 상당부분을 기업에서 담당하고 민족국가가 성립되면서 경제시스템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경제가 개인 및 사회 구원 역할을 많이 담당하게 되었고, 경제시스템이 개인의 행복 추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조직에서 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경영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 있다(Kim, 2020a; Kim, 2020b; Kim, 2020c; Kim, 2018). 이제 경영과 경제가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근대 이후 종교의 영향력이 축소되면서 경제시스템이 인간 삶의 방식과 행복을 크게 좌우하게 되었다.

2.2 자본주의시스템 분석

자본주의(capitalism)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의미한다. 이 경제체제는 16세기 무렵부터 시작하였는데, 18세기 중엽부터 영국과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점차 발달하여 산업혁명에 의해서 확립되었으며, 19세기에 들어와 독일과

미국 등으로 과급되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定義)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 대체로 동의되는 자본주의의 특징은 ①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② 모든 재화에 가격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 ③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상품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것, ④ 노동력이 상품화된다는 것, ⑤ 생산은 전제로서 볼 때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a).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은 아직까지 타 경제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스템으로서 인류 번영의 중심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운영된 자본주의 시스템은 여러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표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영향을 준 대표적인 사상가는 애덤 스미스,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뒤르켐 등 4인이라 할 수 있다(The School of Life, 2016). 먼저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 이어 국부론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의 토대를 구축했다. 내가 중심이되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최적 경제시스템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본주의는 자본이 중심이 되므로, 생산성 향상과 자본의 축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고,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 개인은 소외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다. 자본의 축적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이 통제되고 자본가의 이익은 늘어나서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으로 양분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또한 자본가들이 더 큰 이윤을 내기 위해 투기가 만연하게 되어 자본주의는 불안정한 시스템이 된다고 보았다.

막스 베버는 과학기술 발전 차원이 아닌 정신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의 토대를 제시하였다. 자본주의는 개신교가 성행한 북유럽에서 급속히 성장하였는데, 이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신교에서의 하나님은 심판의 날까지 인간이 미덕을 입증하기를 원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근검 절약을 좋아하고, 노동의 신성함을 중시하고, 가족만이 아니라 사회공동체를 중시하고, 성공은 성실한 노력에 의해서 온다는 개신교의 윤리가 자본주의의 정신적 자양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와 달리 베버는 ‘자본주의를 견디게 하는 대중의 아편’이 아니라, ‘종교의 결과로 자본주의가 성장’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에밀 뒤르켐은 대표저서인 자살론을 통해 자본주의가 성숙하면 자살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그 원인을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우선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부여된 자유에 대해 개인이 스스로 큰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운이 나빠서 사업에 실패했다더라도 자본주의는 그 실패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도록 요구한다는 것이다. 전통사회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은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지나친 희망을 키운다는 것이다. 광고는 우리의 욕망을 한없이 부추기고,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고, 절투가 유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력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라는 현실에 눈이 멀게 하여 어려운 현실 세계를 견디어내는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는 개인에게 넘치는 자유를 주어 의지할 곳을 없게 만든다는 것이다. 직업도 스스로 선택하는 등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하여 피곤한 개인이 더욱 피곤하게 되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자본주의는 대안이 없이 종교를 폐기한다는 것이다. 뒤르켐은 현실세계의 불평등을 개선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자본주의는 현실세계에 초점을 두고 개선한다고 하며 종교를 뒤로 밀어냈다는 것이

다. 종교는 모든 것이 평등한 사회가 현실 너머에 있다고 하며 현실의 불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왔었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인간이 위로받을 곳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민족과 가족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보았다. 자본이 중심이 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는 많은 장점과 함께 단점들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경제시스템 디자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두 개의 상반되는 중요한 가치를 잘 지켜내지 못하고 하나의 가치 추구가 압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태극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Fig.2-2> 및 <Fig.2-3>과 같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자유의 추구하고 인간 욕망의 추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평등과 절제는 자본주의에서는 2차적인 이슈가 된다. 아래 그림 <Fig.2-2>와 같이 인류사회의 두 개의 중심 가치 중 자유와 욕망에 중심을 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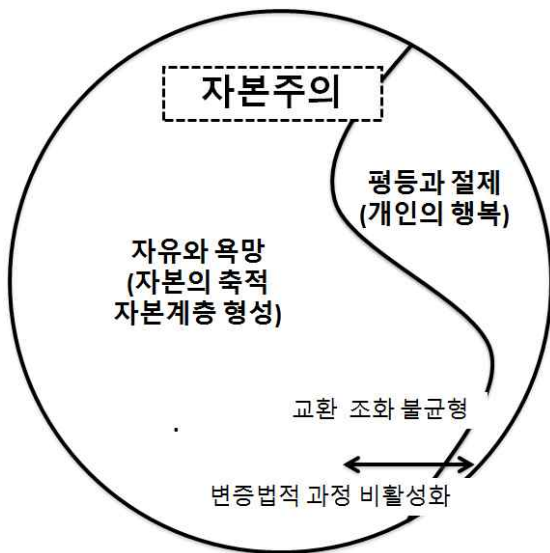


Fig.2-2. A Current Capitalism Framework

상의 운(fortune)에 대한 통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유를 강조하는 속성으로 인해 경제시스템의 기본 구조상 개인이나 조직의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취약하며, 자본이 강조됨으로 인하여 운에 의한 성공과 실패를 보정해줄 수 있는 장치가 취약하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 그림 <Fig.2-3>과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다. 즉 이기심이 적절하게 통제되면서 이타심이 발휘될 수 있는 기제가 있어야 사회 균형이 유지되는데, 자본주의 구조는 자본의 힘이 크기 때문에 자본 축적을 위한 이기적인 힘의 작용이 더 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가 중심 역할을 하던 시대에는 이타심이 종교의 주요 덕목이므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기제가 있었지만, 현대 경제사회는 종교의 영향력이 매우 약해져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있다. 또한 운의 작용에 대한 보상 기제도 취약하다. 행운이나 불운 등 운의 작용이 사업의 성공이나, 개인의 선택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에서는 자본 형성이라는 결과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아래 그림과 같이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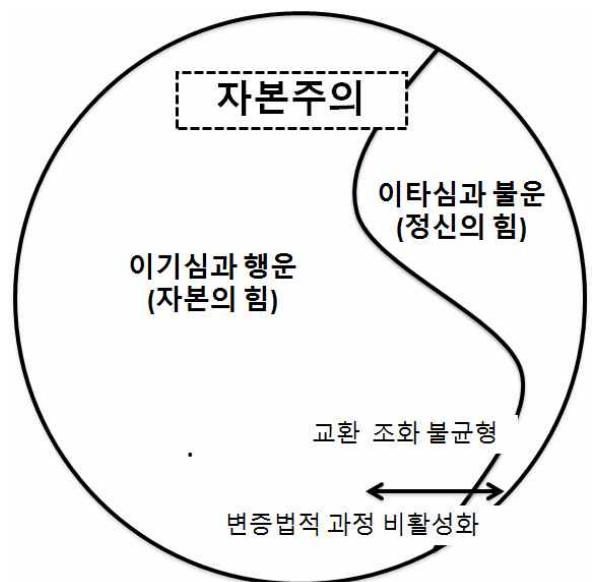


Fig.2-3. A Current Capitalism Operation Model

또한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ego) 통제와 세

따라서 자본주의 시스템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내 계층이 뚜렷하게 형성되는 구조로 진행하게 된다. 즉 아래 그림 <Fig.2-4>와 같이 자유의 힘이 강한 시스템이므로, 절제의 힘이 약해지면서 나선형 사이클이 불평등과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자본주의가 성숙해진 지난 20세기 후반부터 현재 21세기 전반까지 부의 편중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의 원인과 구조를 아래 그림과 같이 나선형 불평등/계층화 과정 사이클로 도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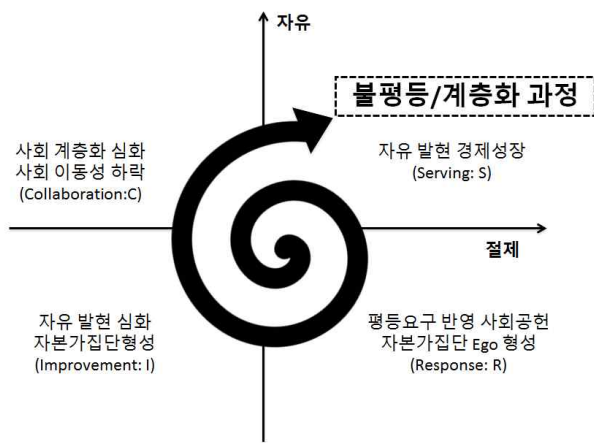


Fig.2-4. A Capitalism Maturity Model

아래에서 기존 경제시스템 중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대표 시스템들을 분석한다.

2.3 사회주의시스템 등 분석

사회주의(socialism)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여러 모순과 병폐들, 즉 생산의 무정부성·자본의 집중·자원의 낭비·실업과 빈곤의 증대·주기적 공황·제국주의와 전쟁 등이 나타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개인주의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개인주의를 폐지하고 반대 원리로 대

치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으므로, 사회주의란 말이 개인주의의 반대말로서 새로 생겨나게 되었다. 1951년 7월 《프랑크푸르트선언》이 나오으로써 사회개조의 방법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이전의 고전적 사회주의에서, 사회주의는 일반적으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기초로 하는 사회개조의 사상을 뜻하는 것으로 상식화되었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b). 이와 같이 사회주의는 인간 개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상인데, 본 논문에서는 개념적 차원에서 사회주의를 자본주의의 ‘자유와 개인’ 개념에 대립되는 ‘평등과 공동체’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사상으로 사용한다. 20세기 말 이후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전 지구적으로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에, 원래 의미의 사회주의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평등과 공동체’ 중시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개념이며, 현재 각 국가에서 중요한 사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시스템 논의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한편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응하는 경제체제로써, 사적소유와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전체의 재산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속하는 경제 제도를 말한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생산을 중심으로 서로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한 시대의 생산관계는 그 시대의 생산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생산력과 그에 따른 생산관계라는 경제적 요인은 사회의 하부구조이며, 정치제도·법률·사상·종교·문화 등은 이 경제적 토대 위에 구축된 상부구조(上部構造)인데, 하부구조가 바뀔 때는 이에 걸맞도록 상부구조도 바뀐다는 것이다(Marx, 2001). 공산주의가 20세기 말에 사실상 사라졌고, 공산주의 이론의 부족함도 입증되었지만, ‘개인의 평등’과 ‘욕망의 절제’라는 기본 개념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현대적 개념의 사회주의에 그 기

본 개념은 반영되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장점과 함께 단점들도 가지고 있다. 우선 평등과 절제를 강화하는 장점도 있지만 소유제한제도는 개인의 자유 추구를 제한하고 있고 욕망의 발현을 억제한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경제 성장이 위축될 수 있다. 아래 그림 <Fig.2-5>와 같이 인류사회의 두 개의 중심 가치 중 평등과 절제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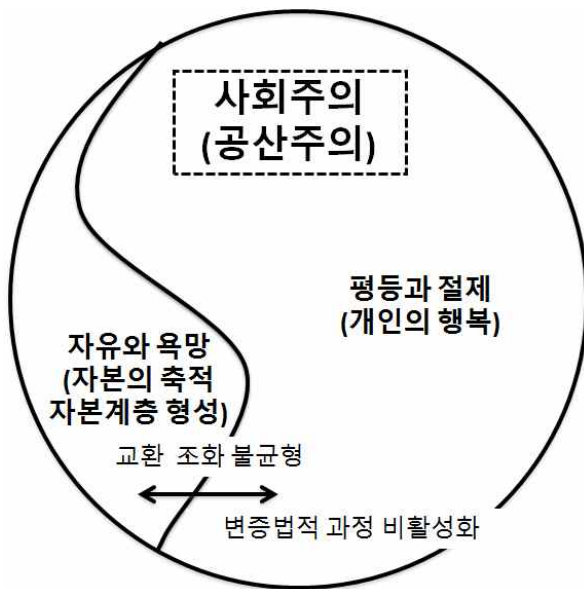


Fig.2-5. A Socialism Framework

이와 같은 기존 경제시스템의 약점과 한계를 보완하면서 현대 경제에 적합한 경제시스템의 요건을 아래에 제시한다.

3.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요건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현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필요조건으로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며, 충분조건으로서 장기 지

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필요 조건과 충분조건 및 기본 공리를 제시한다.

3.1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필요조건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본 연구에서 정의한 현대적 사회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정신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성숙되면서 자본의 힘이 과도하게 커지고 개인의 자유 발현에 힘입어 자본의 도덕성이 점점 쇠퇴해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행정권력과 언론을 장악하는 경향이 있고, 자본에 장악된 정치행정권력과 언론은 자본을 위해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치행정권력이 자본의 힘을 견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와 노동자 권익 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능 수행자들이 인간이라 자신들의 이기심 통제가 취약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권력화된 자본이 집단은 정치행정권력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언론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정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언론인도 인간이고 또한 언론 조직은 자본주의 시스템에 종속된 조직이므로(예를 들어, 기업의 광고 매출 등으로 조직을 유지해야하고, 또 자본이 언론사의 주인인 경우가 있으므로) 자본의 영향권에서 자유롭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인간의 이기심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는 자본주의시스템에서는 불평등의 심화와 자본력 강화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개인의 과도한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자유 보장이다. 또한 정치행정권력과 언론이 본래의 기능인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자본 통제 기능을 충실하

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자유의 통제는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고, 정치행정권력과 언론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국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과도한 통제는 보신주의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편 느슨한 통제는 과도한 이기심 발휘와 이익 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에서는 이념이 다른 정당들이 번갈아 정권을 차지하면서 자본에 대한 통제 수위를 변화시키면서 시스템을 유지해가고 있다. 즉 자유와 성장을 강조하는 정권에서는 자본 통제를 약하게 하고, 평등과 분배를 강조하는 정권에서는 자본 통제를 강하게 하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균형을 맞춰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로 선출된 정치권력도 이기심의 발현을 스스로 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자본의 영향권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시민들을 위한 봉사 임무로서 정치활동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권력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면 자신의 이기심으로 자본과 결탁하기 쉬운 상황인 것이다. 행정권력도 정치권력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가 행정권력의 소임이기는 하지만, 이기심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업무 수행 규정이나 감사활동으로 공직자의 과도한 이기심 발현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체보다 개인이 우선되는 시스템에서는 규정으로 이기심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SBS, 2021).

결국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법제도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필요조건이다.

공직자를 포함한 대다수 인간의 이기심을 법과 제도로 통제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자본의 힘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인간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본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한다. 인간의 본질과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인식 개선이 새로운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이다. 즉 인간의 비이성성과 과도한 이기심을 포용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정치행정권력이나 언론의 이익 추구 가능성을 인정하며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자본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을 키우는 시스템이어야 하는 것이다.

3.2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충분조건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서의 충분조건은 장기 지속가능성이다.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사상적 기반, 구조적 기반, 운용적 기반이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인간이 운영하는 경제시스템이므로 세상 공통원리와 부합해야 장구할 수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공통 원리는 인류대표사상, 우주론, 생명론, 문명론, 예술론 등을 분석하여 도출되었다(Kim, 2019a). 도출된 공통원리를 요약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인류가 삶을 영위하는 환경인 우주의 원리, 인간 등 생명의 공통원리, 인류의 지혜인 대표사상의 공통원리는 비유비무(非有非無)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파니샤드의 브라흐만 설명개념인 neti, neti론(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역과 원자물리학의 태극상보론, 주역의 음양대대원리, 상반상성론, 동서양 공통철학인 변증법사상 등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절대불변인 하나의 진리는 없는 것이고, 대립자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이다. 이는 태극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즉 진리는 태극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태극을 여러 개로 구성하여 전체 진리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Kim, 2020d; Kim, 2019a; Kim, 2019b; Kim, 2019c; Kim, 2019d; Kim, 2017). 이러한 공통 원리를 반영한 현대 세계의 철학은, 서비스철학으로서 아래 <Fig. 3-1>과

같은 구조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철학적 구조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기반이 된다.

공통원리에 의해 대립존재 및 대립개념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과 동태적 균형이 궁극의 진리, 즉 도(道)가 된다. 대립 존재 및 대립 개념 간의 이해관계 현상이 세상의 모습이고 인간 삶의 현실이다. 경제, 사회의 모든 개념들, 예를 들어 권력, 돈, 명예, 지식, 경험, 명분, 이런 것들의 치열한 대립의 장(부귀와 빈천, 선과 악, 미와 추, 자유와 평등, 수직과 수평 등 등)이 세상이고, 이들 각각의 대립 개념들 간의 동태적 균형이 세상을 움직이는 근본 진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이 지속성과 생명의 원리이고, 이것이 없으면 사회나 경제, 그리고 생명은 죽음으로 향해간다고 할 수 있다. 인간 몸의 세포도 나고 죽고를 치열하게 균형 있게 반복하는 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이듯이, 세상의 대립존재와 대립개념도 철저한 상호 균형원리로 운영될 때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이 태극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두 개의 상반되는 개념 또는 대립자를 정의하고, 각각이 뚜렷한 주체성을 가지되, 그 반대 주체가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 반대 측과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속 발전하는 상황을 도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태극 모델이다. 아래 그림 <Fig. 3-1>과 같이 대립자들의 상호작용 모델인데, 대립자 각각이 가치를 가지지만, 그것만이 진리는 아니고, 반대자와의 치열한 상호 균형적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함께 발전해나가는 모델인 것이다(Kim, 2019a).



Fig. 3-1 The Structure of Service Philosophy

또한 공통원리의 주요 부분은 나선형 변증법적 발전 모델이다. 흘러가고 변해가는 모양이 직선형이 아니고 나선형이다. 즉 대립자간의 치열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대측의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해가면서 나선형으로 발전하는 것이 세상의 진화 모델이다. 세상의 운용모델을 표현하는 서비스철학은 아래 그림 <Fig. 3-2>와 같이 나선형 운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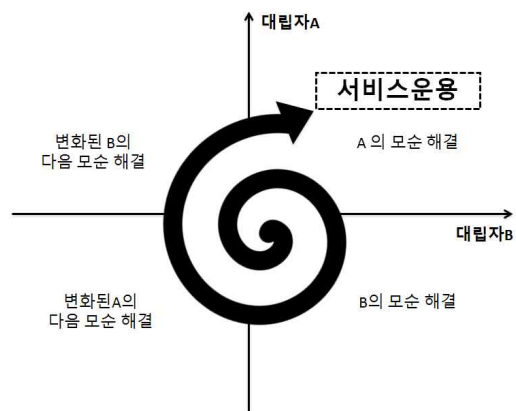


Fig. 3-2 The Flow of Service Philosophy

이와 같은 서비스철학의 구조는 수천년간 중심이 되어온 기존 철학의 중심성 구조와 달리, 비중심성이 기본구조가 된다. 최종 결과가 아닌, 흘러가고 변

해가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이 서비스철학에 기반하여 경제발전 모델의 중심이 되는 두 개의 힘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설정할 수 있다.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이 두 모델은 현대 경제를 운영하는 뚜렷한 힘들이다. 서비스철학에 의해 이 두 힘이 임계점 부근에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며 조화되는 경제시스템이 바람직한 경제시스템이다. 서비스철학의 경제관은 아래 그림 <Fig. 3-3>과 같이 두 힘이 균형되는 조화경제 모델이며, 체제 내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진행되는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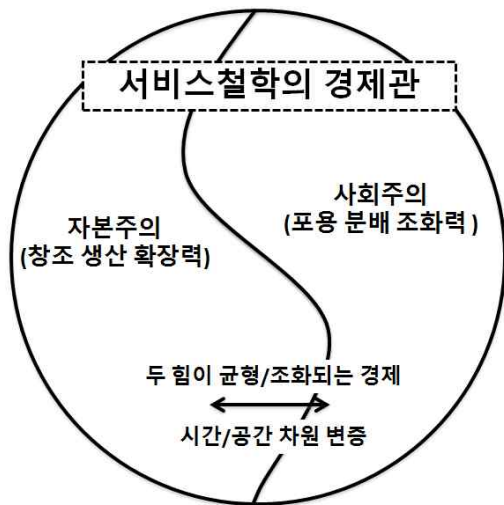


Fig. 3-3. The Economy Perspective of Service Philosophy

경제시스템과 세상운영의 근본원리는 그 중심에 인간이라는 공통적 중심점이 있으므로 동서고금이 공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원을 추적하면 진리가 하나로 귀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 물리학과 고대 철학이 만나고 있고, 과학적 귀납적 발견과 직관적 연역적 발견이 일치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Kim, 2019b, Kim, 2019c; Kim, 2019d; Kim, 2017). 인간이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라도 진리가 일치하고 일관된다면 그것은 한계를 가지지는 하지만 공통원리일 가능성이 높다. 공통원리

를 경제시스템에 반영해야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다. 더구나 경제현장의 무상함과 다양한 응용성격을 감안할 때, 보다 심오한 공통원리에 기반을 둘 필요가 있다. 이 공통원리를 새로운 경제시스템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핵심 공통원리를 공리로 제시한다.

3.3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공리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불변의 공리(axiom)에 기반하여 구축된다. 인류공통원리 기반의 서비스철학에 의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공리는 아래와 같다.

[공리 1]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공간상에서 연결되어 있다.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현대 과학기술문명이 발전하면서 인간사회도 서비스 네트워크 사회가 되어 위 문장은 증명이 필요없는 공리로 성립한다 (Lamprecht, 1992; Yang, 2012).

[공리 2] 모든 것은 대립자가 있다. 경제시스템의 주체와 객체들에도 제반 대립자가 있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하며, 경제사회의 근본을 이루는 전제이므로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Lao-Tzu, 1982; Radbruch, 1985; Yi, 2010).

[공리(axiom) 3] 모든 것은 변한다. 경제시스템의 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인류공통사상에 의해 위 공리는 성립한다. 주역이나 헤라클레이토스의 고대사상부터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사상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이므로, 경제에서도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로 성립한다(Kim, 2019a; Kim, 2019b; Kim, 2019c; Kim, 2019d; Kim, 2017).

[공리(axiom) 4] 변화에는 물리학 법칙이 작용한다.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한다.

자연세계의 법칙에 따라 대립자간의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 균형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즉 관성의 법칙에 따라 균형점을 한동안 벗어난 후에야 반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다. 또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 한번 상태가 전환되어 속도가 붙으면 가속도가 작용하여 크게 균형점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거나 큰 힘이 필요할 수 있다.

[공리 5] 인간의 내재적 욕망은 무한하다. 인간은 외부에서 제약을 가하지 않는 한 욕망 추구를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이므로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기 어렵고, 인간의 정신은 무한을 추구하므로 욕망에 대해서도 한계를 가지지 않는다. 다만 윤리나 도덕, 법과 제도 등의 외부적 힘에 의해 욕망추구가 제한된다(Lao-Tzu, 1982).

[공리 6] 인간사회의 무질서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무질서도가 감소할 수 있다.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해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피(무질서도)가 계속 증가한다. 개방된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어떤 계의 엔트로피를 줄이려면, 외부

에서 그 계에 물리적인 ‘일(work)’ 을 해 줘야만 한다. 예를 들어, 어지러워진 책상을 정리하려면 우리는 힘을 들여 일해야만 한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0c). 경제시스템에서도 외부로부터 오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시스템의 무질서도는 계속 증가한다.

이와 같은 공리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요건에 의해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구조를 도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이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으로 명명한다.

4.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와 운용 모델

서비스주의는 세상공통원리인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둔 모든 이념을 의미한다.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은 서비스철학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된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경제시스템의 구조를 화쟁태극구조로, 운용모델을 변증법적 모델로, 구현방안은 인공지능기반 자동전환 모델로 제시한다.

4.1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은 공리에 기반하여 그 구조가 구축된다. [공리 2]에 의해 경제시스템에 두 대립자가 존재하며, [공리 1]에 의해 이 두 대립자들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공리 3]에 의해 두 대립자들의 상태는 계속 변화해간다. [공리 4]와 [공리 5]에 의해 변화는 균형점을 넘어가며 진행된다. [공리 6]에 의해 외부에서 힘을 가해야 방향을 선회하며 균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비스철학에 기반하여 두 대립자간의 철저한 대칭 균형성이 중심

사상이 되며, 두 대립자들이 서로 대립면을 공유하며 치열하게 경쟁하며 상호 윈윈을 추구한다. 두 힘이 임계점 부근에서 균형을 이루며 조화되는데, 이 과정이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 과정으로 진행된다. 50:50의 균형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는 어려우므로 시소처럼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쪽 힘이 강해져서 다시 반대로 기울고, 또 다시 반대쪽 힘이 강해져서 다른 반대로 균형을 잡아가는 동태적 균형 구조다. 대립자의 한 쪽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만, 자신의 입장에 모순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고 있고, 따라서 반대쪽 입장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모델이다. 서비스주의는 화쟁 모델이다. 상반되는 두 대립자가 서로 다른 둘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다른 측면임을 알고 상호 발전을 위한 과정에서 화(和)와 쟁(諍)을 번갈아 사용하는 모델이다.

새로운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의 구조는 경제철학, 경제인간, 경제주체 등 세 가지 관점으로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서비스주의 경제철학은 대립되는 두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화경제철학이다.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경제철학의 두 대립자는 자유와 평등, 성장과 분배 등 2개의 차원으로 제시된다. 자유와 성장이라는 자본주의 경제의 강점 철학과 평등과 분배라는 사회주의 경제의 강점 철학이 두 대립자다. 이 대립자들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모델이 서비스주의 경제철학이다. 즉 아래 그림 <Fig. 4-1>과 같이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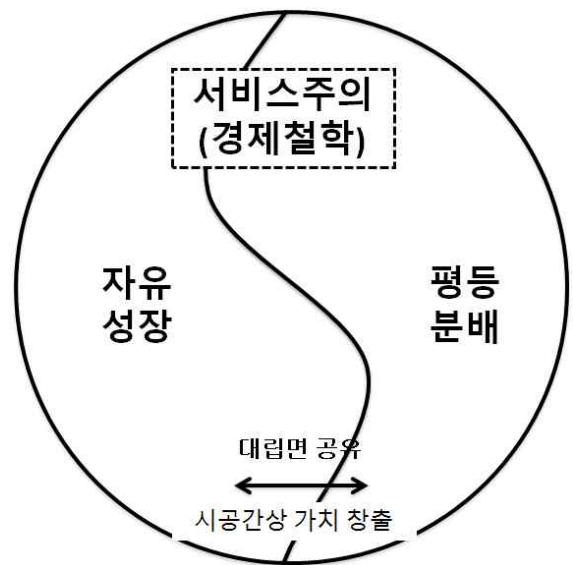


Fig. 4-1 The Servicem on Economy Philosophy

서비스주의 경제철학이 경제사회의 저변에 구축되어 있는 경제시스템은 균형점 부근의 안정상태로 빠르게 회복된다. 철학적 기반이 경제주체들에게 공유되어 있으므로, 전환이 쉬운 것이다. 경제시스템이 균형점을 벗어나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계속 증대되는 모델이다. 두 대립자가 대립면을 공유하며 서로 간에 자신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화쟁태극모델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비스주의의 경제인간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대립되는 두 힘이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조화경제인간이다.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을 발휘하면서 확장지향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인간형과 또 하나의 내면의 본성인 이타심을 발휘하면서 타인을 포용하며 배려하는 인간형이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의 경제인간은 아래 그림 <Fig. 4-2>와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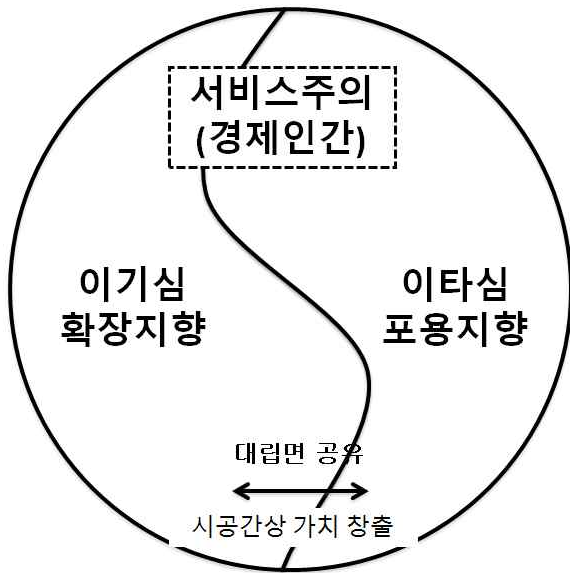


Fig. 4-2 The Servicism on Homo Economicus

어느 한 인간 또는 어느 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힘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서비스주의 사상이 저변에 구축된 사회와 시대는 균형점 부근의 안정상태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철학적 기반이 경제인들에게 공유되어 있으므로, 시스템 전환이 쉬워지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주의의 경제주체는 경제를 운용하는 대립되는 두 주체가 대립면을 공유하면서 시공간상에서 변증법적으로 균형을 이루어가는 조화경제모델이다. 제2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경제주체의 두 대립자는 개인과 공동체다. 개인의 특징은 소유중심이며, 공동체의 특징은 공유중심이다. 개인과 공동체가 상호 대립면을 공유하며 팽팽한 균형을 이루어가는 모델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주의의 경제주체모델은 아래 그림 <Fig. 4-3>과 같은 화쟁태극모델로 표현할 수 있다. 경제주체는 경제중심이 되므로 아래 그림에서 경제중심으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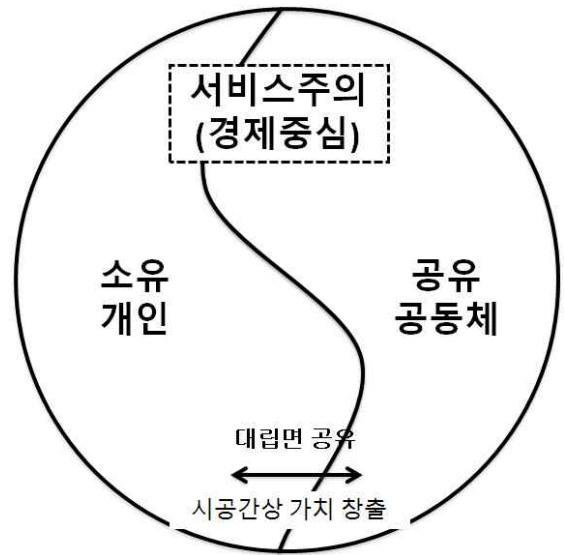


Fig. 4-3 The Servicism on Economic Center

이 대립면에서 변증법적 사이클이 매우 짧고 빠르게 진행된다. 어느 한 시대 또는 어느 한 사회에서는 하나의 힘이 매우 강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서비스주의 사상이 저변에 구축된 사회는 균형점 부근의 안정상태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 서로 자신의 입장에 모순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 반대편 시스템에의 포용 공간을 확보해 둔 시스템이므로, 균형상태로 쉽게 복귀할 수 있다. 철학적 기반이 경제주체들에게 공유되어 있으므로, 전환이 쉬운 것이다. 스스로 내적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이 계속 증대되는 모델이다.

이러한 서비스주의의 경제시스템 구조와 앞서 제시한 공리들을 기반으로 한 경제시스템 운용모델을 아래에 제시한다.

4.2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운용모델

서비스주의의 경제시스템은 두 대립자들의 상호 작용이 변증법적 과정으로 진행되는 모델이다. 서로의 단점과 장점을 잘 인지하고 있어,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는 시간과 공간에서도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립자의 장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둔 모델이다. 앞서 경제시스템 구조에서 제시한 두 대립자들을 각각 하나의 축으로 도시하여 변증법적 운용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자유와 성장, 이기심과 확장지향성, 소유와 개인 등을 하나의 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또 평등과 분배, 이타심과 포용지향성, 공유와 공동체 등을 다른 축으로 도시할 수 있다. 변증법적으로 경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과정은 아래 그림 <Fig.4-4>와 같이 나선형 정반합 사이클로 진행된다. 즉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으로 시작한 국가의 경우,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는 성장주의 문화로 시작하여, 점차 공동체와 평등 및 분배를 강화해가는 1/4 분면 사이클에서 시작한다.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개인의 욕망 추구가 증대되고 경제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 원리와 [공리 4]의 반작용 원리 및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그러나 [공리 4]에 의해 균형점을 상당히 벗어난 시점에서 균형 회복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동체와 평등 및 분배가 중심이 된 경제시스템으로 이전되어 상당 기간 진행하는 2/4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2/4분면에서는 [공리 4] 관성의 법칙에 의해 공동체 중심성이 계속 강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면서 성장도 둔화된다. 다시 [공리 3]과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이전 사이클에서의 문제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다시 자유와 성장 중심 모델을 회복하는 3/4분면 사이클로 진행한다. 다시 [공리 5]와 [공리 6]에 의해 개인의 욕망 추구가 증대되고 경제시스템의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공리 3]의 변화와 [공리 4]의 반작용의 힘, 그리고 [공리 6]에 의해 균형을 회복하려는 반대쪽의 힘이 작용한다. 다시 [공리 4]에 의해 균형점을 상당히 벗어난 시점에서 균형 회복 노력의 결과가 나타난다. 공동체와 평등 및 분배가 중심이 된 4/4분면 사이클로 이동한다. 경제시스템은 서비스주의를 유지하며 한

동안 진행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공리 3]과 [공리 6]에 의해 경제 상황이 변하면 다시 자유 중심 시스템을 강조해야할 필요성이 커진다. 다시 1/4 분면 사이클로 이동하여 다음 변증법적 사이클을 진행한다. 이러한 변증법적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운용모형을 그림으로 도시하면 아래 <Fig.4-4>와 같다.



Fig. 4-4 The Servicicism Operation Model

현대 경제시스템에서는 두 대립자인 자유와 평등의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사용하여 상황을 표현하면 자유주의 시스템이 절대 우위인 건괘(왼쪽 위에 있는 3개 효 모두가 양(-)효)인 경우는 거의 없고, 또한 평등주의 문화가 절대 우위인 곤괘(오른쪽 아래에 있는 3개 효 모두가 음(--)효)인 경우도 거의 없다. 대다수의 경우가 리괘(왼쪽 아래에 있는 내부가 음효, 외부 2개가 양효)이거나, 감괘(오른쪽 위에 있는 내부가 양효, 외부 2개가 음효)인 경우이다. 외형적으로는 자유주의 경제이지만 내면의 평등주의가 받쳐주고 있는 리괘형 시스템이거나, 외형적으로 평등주의 경제이지만 내면은 자유주의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감괘형 경제시스템이 대다수이다. 1/4 분면과 3/4 분면은 자유주의 중심 경제에서 평등주의 중심 경제로 전환되는 사이클이고, 2/4 분면과 4/4 분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이전되는 사이클이다.

이와 같은 2차원 운용모델에 추가하여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3개의 차원을 더하여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운용모델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Fig.4-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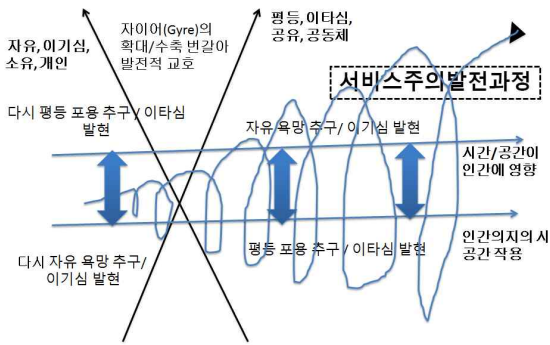


Fig. 4-5 The Servicem Operation Model on Time Space People Dimension

위 그림에서와 같이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은 시공간상에서 계속 균형을 유지해가는 모델인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며 균형에서 이탈하거나 균형을 회복해간다. 인간의 이성적 힘이 강할 경우 균형을 회복하려는 의지가 강할 것이고, 비이성적 힘이 강할 경우 균형에서 이탈하려는 힘이 강할 것이다. 경제시스템의 대립되는 두 힘에 추가하여 시간 공간 인간이라는 세 개의 힘이 작용하는 5차원이 서비스주의가 가동되는 환경이므로, 확정적인 해답이 없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2차원 그림에서의 두 대립자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표현할 수 있다. 즉 x축과 y축으로 두 힘을 표현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변증법적 전개 모델 <Fig. 4-4>는 평등주의를 x축으로, 자유주의는 y축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인간 시간 공간 축을 각각 독립적인 m, n, l 축으로 표현하면 5차원 모델이 된다. 대수 방정식에서도 5차방정식 이상은 근의 공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5차원 경제시스템도 확정적인 해답을 가지고 운용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불확실성을 내포한 근사한 솔루션을 인류사회의 경제시스템 운용모델로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아래에서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내포된 새로운 경제시스템 구현방안을 제시한다.

4.3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현방안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은 시스템의 복잡성과 인간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여 상당부분 불확실성을 인정해야 한다. 즉 5차 이상 방정식에서는 확정적인 해법이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하듯이, 새로운 경제시스템도 인간이 확정적으로 최상의 해답을 찾아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인간이 그러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100% 확정적인 솔루션을 찾아내기 어려움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기심을 초월한 성인(聖人)들이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닌, 항상 유혹과 공포에 흔들리기 쉽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유한한 생명의 인간이 서비스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가미된 과학기술시스템,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불확실성을 수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인간의 한계로 인한 이성성과 비이성성을 모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미시세계 불확정성 원리를 도입하고, 거시 물리세계의 확정성 원리도 도입하고, 인간 친화적인 모델도 도입하여 인간세계의 비이성성과 욕망이 적절히 통제되는 구조를 구현한다.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구조인 대립면을 공유하는 법과 제도가 제정되어 있으며, 어느 한쪽이 적용되는 시점과 반대쪽이 적용되는 시점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단일 안으로 법제도를 확정하지 않고 두 개의 법제도가 확률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수 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하나의 법제도가 적용된다. 특수한 상황, 즉 두 힘이 철저한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두 제도가 동일한 시스템이 되도록 한다. 대립되는 두 힘의 현재 강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인공지능시스템이 내장하고 있다. 그리고 두 힘이 차이는 정도,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판단하는 알고리즘도 내장하고 있다. 경제관련 및 사회관련 각종 지표들이 사용되고 있다. 경제적 불평등도, 경제적 자유도 등의 증감 수치는 물론이고 개인의 행복도, 산업 경쟁력 등도 계산되고 있다. 인공지능은 불확실성이 가미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개인들의 SNS데이터와 거래 데이터 등을 포함하여 분석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데이터 분석 과정 및 결과에 특정 집단이 영향을 미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내재적 불확실성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무작위성이 개입되도록 하며, 양자물리학 실험 시스템을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 인간이 자연과 신 앞에 평등하듯이 불확실성 앞에서도 평등하도록 알고리즘이 구축된다. 알고리즘을 구축할 때도 특정 집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원리에 따르도록 한다.

인간이 자연과 경제시스템 통제 주체 지위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인간이 100% 경제시스템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인간의 여러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과 통제 권한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현방안은 자연의 원리를 내장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Fig.4-6>과 같이 ‘자연이라면 이렇게 의사결정할 것이다’ 라고 분석된 알고리즘을 내장한 인공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는 인간이 경제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변증법적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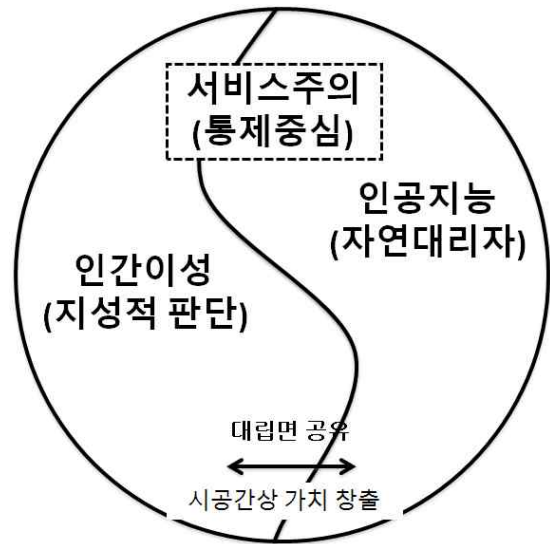


Fig. 4-6 The Servicium Control Model

자연원리를 대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설계는 별도 연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방향만을 제시한다. 인공지능시스템의 판단 및 의사결정 모델은 자연의 원리를 따른다.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 자연의 원리이므로, 불확실성이 주요 요소가 되며, 대칭성 조화성 등의 자연원리가 구현된 시스템으로 설계된다.

이와 같이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연과 공동으로 통제권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일정부분 자연의 원리를 수용할 때,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비이성성과 이기심을 인간 스스로 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자연원리를 활용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5. 토의 및 과제

본 연구에서는 인류 전체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지난 수 천년 간의 경제운용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장기 지

속가능발전시스템 모델과 그 구현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이 인류사회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고, 과거에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시스템을 운용하기도 하였으나 실패한 모델로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다. 봉건주의 시스템 등 기타 시스템도 경험하였으나 인류는 여전히 이상적인 경제운용시스템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대세계는 더 좋은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주된 경제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변화되는 경제사회환경이 일자리 부족과 불평등 심화 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류사회가 경험하였거나 경험하고 있는 경제운용시스템을 분석하고, 현대와 미래사회에 이상적이면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장기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였다.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하고, 현대경제사회의 특성과 경제 자체의 본질에 충실한 모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인류사회의 공통원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장기간 지속적으로 인류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인류사회가 요구하는 평등과 자유 등 핵심 가치를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모델이어야 한다.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요구되는 조건을 분석한 후, 바람직한 모델로서 서비스주의 경제시스템 모델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시스템의 구조와 운용모형을 제시하였으며, 구현방안을 제안하였다. 인간의 문제점과 한계를 반영한 개선 모델로서 제시되었다. 향후 본 모델을 검증하고 실용화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

- [1] Kim, Hyunsoo (2020a), A Study on the New Management Technology Model in Service Economy Era,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4, Sept. 2020, pp.101-125 (김현수(2020a), 서비스경제시대의 경영기술 연구, 서비스연구, 제10권 제4호, pp.101-125)
- [2] Kim, Hyunsoo (2020b), A Study on the New Manager Model in Service Economy Era,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3, Sept. 2020, pp.1-22 (김현수(2020b), 서비스경제시대의 신경영자 모델, 서비스연구, 제10권 제3호, pp.1-22)
- [3] Kim, Hyunsoo (2020c), A Study on the Service Management Model as the New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2, June 2020, pp.91-108 (김현수(2020c), 신경영으로서의 현대 서비스경영 모델, 서비스연구, 제10권 제2호, pp.91-108)
- [4] Kim, Hyunsoo (2020d), A Study on the Framework of New Management,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10, No.1, Mar. 2020, pp.1-15 (김현수(2020d), 신경영학 프레임워크 연구, 서비스연구, 제10권 제1호, pp.1-15)
- [5] Kim, Hyunsoo (2019a), A Study on Service Philosophy for New Economy and Societ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4, Dec. 2019, pp.1-17 (김현수(2019a), 신경제사회 중심사상으로서의 서비스철학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4호, pp.1-17)
- [6] Kim, Hyunsoo (2019b),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Wester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3, Sept. 2019, pp.1-16 (김현수(2019b), 서양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9권 제3호, pp.1-16)

- [7] Kim, Hyunsoo (2019c),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instream Oriental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2, June 2019, pp.1-15 (김현수(2019c), 동양주류 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pp.1-15)
- [8] Kim, Hyunsoo (2019d), A Study on the Service Philosophy of Major Korean Ideolog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9, No.1, March 2019, pp.1-16 (김현수(2019d), 한국대표사상의 서비스철학성 고찰, 서비스연구, 제9권 제1호, pp.1-16)
- [9] Kim, Hyunsoo (2018) New Management of Management, Kookmin University Press, (김현수 (2018), 경영의 신경영, 국민대학교 출판부)
- [10] Kim, Hyunsoo (2017),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Philosophy as the Service Economy Philosophy,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7, No.3, Sept. 2017, pp.105-118 (김현수(2017), 서비스 경제철학으로서의 한국고유사상 정합성 연구, 서비스연구, 제7권 제3호, pp. 105-118)
- [11] Kim, Hyunsoo(2016), A Study on Accelerating Service Economy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ol.6, No.3, Sept. 2016, pp.15-28 (김현수(2016), 4차 산업 혁명의 서비스경제화 촉진 연구, 서비스연구, 제6권 제3호, pp. 15-28)
- [12] Lamprecht, S.P. (1992),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Kim Taegil, etc. Tr., Eulyou Culture Co. (렘프레히트(1992), 서양철학사, 김태길 등 역, 을유문화사)
- [13] Lao-Tzu(1982), Tao Te Ching, Ki Keun Chang Tr., Samsung Publishing Co. (노자(1982), 도덕경, 장기근 역, 삼성출판사)
- [14] Marx, Karl(2001), Kim, S. H. Tr., Capital, Bibong Publishing Co. (마르크스(2001), 김수행 역, 자본론, 비봉출판사)
- [15]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0a), Capitalism, Doosan Encyclopedia, (네이버 지식백과(2020a), 자본주의, 두산백과).
- [16]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0b), Socialism, Doosan Encyclopedia, (네이버 지식백과(2020b), 사회주의, 두산백과).
- [17] NAVER Knowledge Encyclopedia(2020c),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Physics Stroll, Jongpil Lee (네이버 지식백과(2020c), 열역학 제2법칙, 물리산책, 이종필).
- [18] Radbruch, Gustav(1985), Choi, J. K. Tr., Rechtsphilosophie, Samyeongsa. (라드브루흐(1985), 최종고 역, 법철학, 삼영사)
- [19] SBS(2021), LH Breakup, 2021.3.20 News (에스비에스방송(2021), LH해체하라, 2021.3.20 뉴스)
- [20] The School of Life(2016), Kim & Oh Tr., Great Thinkers, Wiseberry (인생학교(2016), 김한영 & 오윤성 옮김, 위대한사상가, 와이즈베리)
- [21] Yang, Haerim(2012),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Jipmundang (양해림(2012), 서양철학사, 집문당)
- [22] Yi, Gidong(2010), The Book of Changes Lectures, Sungkyunkwan University Press. (이기동(2010), 주역강설,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Kim, Hyunsoo (hskim@kookmin.ac.kr)



Hyunsoo Kim is a Professor of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He majored in nuclear engineer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cquired Master's degree in management science from the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ceived his Ph.D. degree at the University of Florida with business administration major. Currently he serves as the chairman of the Society of Service Science, and the chairman of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Service Industry as well as the chairperson of Service Korea Initiative. Based on those experiences and knowledge on Service industry and academia, he devotes himself to the researches on Service Science and Service innovation.

A Servicism Model of the New Economy System

Hyunsoo Kim*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a model of a sustainable economic system for humanity in the era of service economy that requires a paradigm shift. A new long-term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has been built on the basis of thousands of years of economic operation experience. Currently, the world is operating the capitalism as the main economic system because there is no better alternative, and the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such as the adv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acerbating the problems of the capitalism, such as job shortages and inequality.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experienced by human society, and derived an economic system model that is ideal for the modern and future society and is sustainable in the long term. The conditions for a long-term sustainable economic system were presented first. It must be a model that can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It must be a model that is faithful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dern economic society and the nature of the economy itself. And since the new economic system is for humanity, it must be based on the common principles of human society. It should be a model that continuously guarantees core values such as equality and freedom required by human society. After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current economic system and analyzing the conditions required for the new system, the basic axioms that the new economic system should be based on were presented, and a desirable model was derived based on this. The structure of the derived model and the specific operation model were presented. In the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specify the operational model so that this model can be settled well in different environments for each country.

Keywords: Servicism, Economy System, Service Philosophy, Capitalism, Socialism, Artificial Intelligence

*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hskim@kookmin.ac.kr